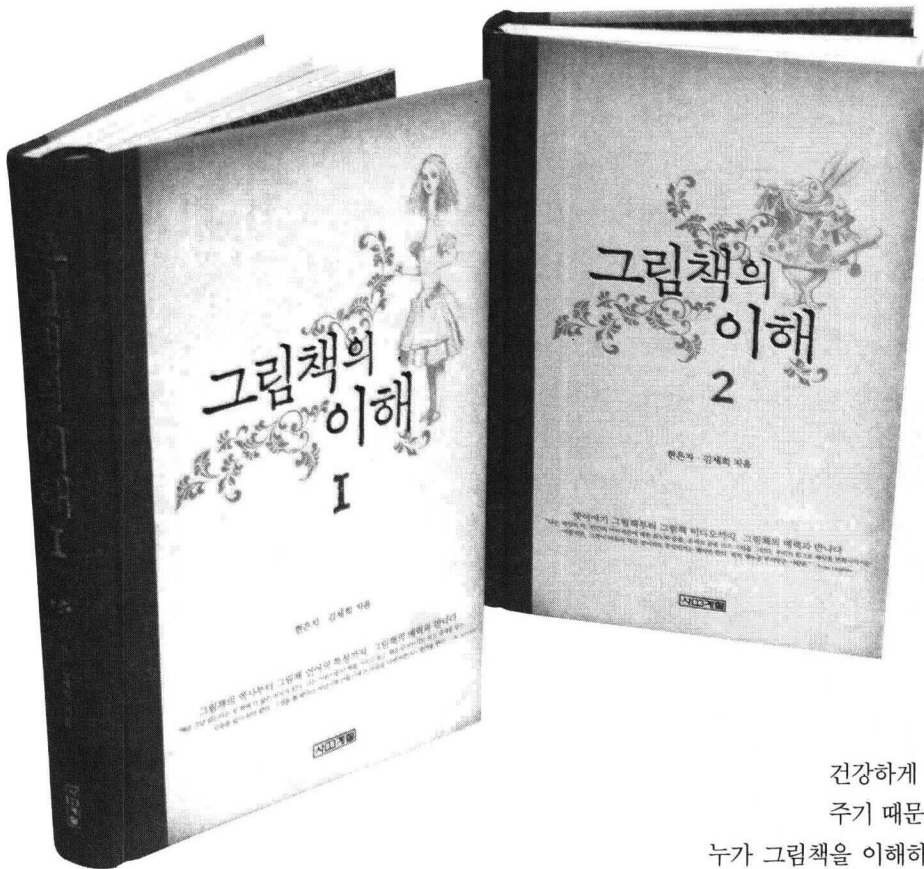


그림책의 놀라운 세계로의 초대

글쓴이_ 김금희



《그림책의 이해 1, 2》

현은자, 김세희 지음 | 사계절출판사 | 각권 약 400쪽 내외 | 각권 값 24,000원

●이 글을 쓴 김금희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이사 및 그림책 분과장, 한국영유아교육학회 및 한국유아교육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은 어느 것입니까? 필자가 매학기 강의 첫날에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다. 학생들은 “다 큰 어른이 무슨 그림책을 좋아할까?” 하면서도 어릴 때 읽었던 그림책의 자취를 더듬느라 바쁜 눈치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주로 1980년대에 어린시절을 보냈기에 단행본으로 된 양질의 그림책을 풍부하게 읽고 자란 세대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십년동안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수많은 양질의 그림책과 함께 자라고 있다. 지금 출판되고 있는 질 좋은 그림책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양식이기에, 풍부한 마음과 영혼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으로 가슴이 뛰다.

교육계에 불어온 총체적 언어교육 접근법의 영향으로 많은 그림책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많은 그림책 활용서가 출판되었지만, 그림책 활용에 앞서 그림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은 없었다. 양질의 그림책이 조잡하게 구성된 언어교육용 책에 밀려 서점의 뒷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어른들의 생각에 깊이가 더해지면, 어린이들이 양질의 그림책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누가 그림책을 이해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림책을 이해해야만 하는가? 그림책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가? 그림책의 출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림책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책을 읽고, 즐기고,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도서관 사서, 교사, 부모, 대학생, 그림책 글작가, 그림작가, 학자, 출판 관계자, 독서 지도사 및 독서 치료사, 그리고 아동문학을 사랑하고 알고자하는 일반 성인들로, 어린이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림책과 개인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그림책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막혔던 물이 터져 나오듯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림책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그림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림책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래 기다렸기에 반갑

고 기쁜 일이지만 수많은 그림책 중에서 옥석을 찾아 내는 능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아직은 번역 그림책이 우리 작가들이 만든 그림책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히 양질의 번역 그림책이 많이 출판되었기에 그림책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그림책 연구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림책에 대한 전반적 정리가 필요한 시기에 출간된 책으로 그림책을 깊이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

두 권으로 깔끔하게 재본되어 오래 소장하고 싶은 이 책은 “그림책”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여 왔던 아동문학 또는 유아문학이라는 용어 대신 “그림책”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하여 그림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그림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그림책에 대한 바탕 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책 이해의 기초가 되는 그림책의 역사 뿐 아니라, 장르별 그림책의 종류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림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그림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그림책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요 작가(외국과 우리나라) 및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림책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새로운 이슈, 예를 들어, 영아 그림책, 패러디 그림책, 성경 그림책, 알파벳 그림책, 영상 매체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림책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고, 그림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 그림책 연구서는 아동문학에서의 그림책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그림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 올려놓았다고 본다.

이 책은 소개된 각 그림책 표지를 원본 그대로 칼라로 제공함으로써 그림책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그림(시각조형예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내외 그림책 수상작에 대한 정보,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 동향과 위상, 아동문학 관련 입문서에 반드시 필요한 인명 및 용어 찾아보기를 충실히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장에서 제시하는 장르별 그림책의 특성과 평가 준거는,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그림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며, 수많은 그림책 중에서 좋은 그림책을 어떻게 선별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준다. 앞으로 이와 같은 그림책 연구서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보강되어 출판될 것이다.

기존의 그림책과 관련된 아동문학 안내서 또는 입문서는 크게 국문학 또는 문예창작 분야에서의 문학적인 접근과, 교육학 분야에서의 교육적인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두 분야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통분모는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이다. 그림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 그림의 예술성 뿐만 아니라 교육성(적합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책의 특성상 문학성에 대한 이해 외에, 그림이 주는 또 하나의 예술적 이해를 돕고, 독자인 어린이에게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그림책은 독자인 어린이에 의해 완성되는 것처럼, 그림책 연구서인 이 책도 그림책의 주요 독자인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독자로 하여금 그림책과 어린이를 동시에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